

(가)

“상천(上天) 일월 성신(星辰)이며, 하지(下地) 후토(后土) 성황(城隍) 사방지신(四方之神), 제천제불(諸天諸佛) 석가여래 팔 금강보살(八金剛菩薩) 소소응감(昭昭應感) 하옵소서. 하느님이 만드신 일월은 사람에게는 눈과 같은지라. 일월이 없사오면 무슨 분별 하오리까. 소녀 아버 무자생(戊子生) 이 십세 후 눈이 멀어 사물(事物)을 못 보오니, 소녀 아버 허물 이랑 제 몸으로 대신하고 아버 눈을 밝게 하여 친생연분 짝을 만나 오복(五福)을 갖게 주어, 수부다남자(壽富多男子)를 접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야로 빌었더니, 도화동 심 소저는 천신(天神)이 아는지라. 흠향(歆饗)*하시고 앞일을 인도하셨더라. 하루는 유모 귀덕어미가 오더니

“아가씨, 이상한 일 보았나이다.”

“무슨 일이 이상하오?”

“어떠한 사람인지 십여 명씩 다니면서 값은 고하간에 십오세 처녀를 사겠다고 다니니 그런 미친놈들이 있소?”

심청이 속마음에 반겨 듣고,

“여보, 그 말이 진정이요? 정말로 그리될 양이면 그 다니는 사람 중에 노숙(老熟)하고 점잖은 사람을 불러오되, 말이 밖에 나지 않게 조용히 데려오오.”

귀덕어미 대답하고 과연 데려왔는지라. 처음은 유모를 시켜 사람 사려는 내력을 물은즉 그 사람의 대답이,

“우리는 본디 황성(皇城) 사람으로서 상고(商賈)차로 배를 타고 만 리 밖에 다니더니, 배 갈 길에 인당수라 하는 물이 있어 변화불측(變化不測)하여 자칫하면 몰사(沒死)를 당하는데 십오 세 된 처녀를 제수(祭需) 넣고 제사를 지내면, 수로(水路) 만 리를 무사히 왕래하고 장사도 흥왕하옵기로 생애(生涯)가 원수로 사람 사러 다니오니, 몸을 팔 처녀가 있사오면 값을 관계치 않고 주겠나이다.”

[A]

심청이 그제야 나서며,

“나는 본촌 사람으로 우리 부친 앞을 보지 못하여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기로, 평생에 한이 되어 하느님 전에 축수하더니, 몽운사 화주승이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되, 가세가 지빈(至貧)하여 주선할 길 없삽기로 내 몸을 방매하여 발원(發願)하기 바라오니 나를 사 가는 것이 어떠하오? 내 나이 십오 세라 그 아니 적당하오?”

선인이 그 말 듣고 심 소저를 보더니, 마음이 억색(臆色)*하여 다시 볼 정신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섰다가,

“낭자 말씀 듣자오니, 가륙하고 장한 효성 비할 데 없습니 다.”

이렇듯이 치하한 후에 저의 일이 긴한지라,

“그리하오.”

하고 허락하더라.

(중략)

“저 소경 이리로 와 거주 성명을 고하게 하라.”

심봉사가 꿰어앉았다가 시녀를 따라 탐전(榻前)으로 들어가서 세세원통한 사연을 날날이 말씀한다.

“소맹은 근본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학규라 하옵니다. 이십에 안맹하고 사십에 상치하여, 강보에 짜인 여식 동냥젓을 얻어 먹여 근근이 길러 내어 십오 세가 되었는데 이름은 심청이라. 효성이 출천하여 그것이 밥을 빌어 연명하여 살아갈 제, 몽운사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 석을 지성으로 시주하면 눈 뜬단 말을 듣고 남경장사 선인들에게 공양미 삼백 석에 아주 몸을 영영 팔려 인당수에 죽었는데, 딸만 죽이고 눈 못 뜨니 몹쓸 놈의 팔자 벌써 죽자 하였던니 탐전에 세세 원정(原情) 날날이 아뢴 후에 죽자고 불원천리 왔나이다.”

하며 백수풍진(白首風塵) 고루 겪은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며,

[B]

“애고, 내 딸 청아!”

엎어지며 땅을 치고 통곡을 마지아니하니, 심 황후 이 말을 들으시매, 말을 다 마치고 전에 벌써 눈에서 피가 두르고 뼈가 녹는 듯하여 부친을 붙들어 일으키며,

“애고 아버지, 살아왔소. 내 과연 물에 빠진 청이요. 청이 살아오니 어서 눈을 뜨시고 딸의 얼굴을 보옵소서.”

이 말을 들은 심봉사가 어떻게 반가웠던지 두 눈 번쩍 뜨이니 심봉사 두 손으로 눈을 찌씩 비비며,

“으, 이게 웬 말이나? 내 딸 심청이가 살았던 말이나? 내 딸 심청이 살았던 말이 웬 말이나? 내 딸이면 어디 보자!”

하더니, 백운이 자욱하며 청학·백학·난봉·공작이 운무중(雲霧中)에 왕래하며 심봉사 머리 위에 안개가 자욱하더니 심봉사의 두 눈이 활짝 뜨이니, 천지 일월 밝아 왔구나. 심봉사 마음 비취여광하여 소리를 지른다.

“애그머니! 애고, 무슨 일로 양쪽 환하더니 세상이 허전하구나. 감았던 눈 번쩍 뜨니 친지 일월 반갑도다.”

딸의 얼굴 쳐다보니 칠보화관(七寶花冠)이 황홀하여 뚜렷하고 어여쁠사. 심봉사가 그제야 눈뜬 줄을 알고 사방을 살피보니 형형색색 반갑도다. 심봉사가 어쩌나 좋은지 와락 달려들어,

“이게 누구냐? 갑자 사월 초파일날 몽중에 보던 얼굴일세. 음성은 갈다마는 얼굴은 초면일세. 얼씨구나 지화자, 이런 경사 또 있을까. 여보게 세상 사람들아, 고진감래(苦盡甘來) 나를 두고 한 말일세. 얼씨구 좋을씨고, 지화자 좋을씨고!”

- 작자 미상, 「심청전(深淸傳)」 -

(나)

왕후 : (장승상 부인을 보고) 그러면 심청이라는 소녀는 분명 죽은가 보이다.

장승상 부인 : (눈물을 씻으면서) 네 아마도 그런가 합니다.

왕후 : 그러니 그는 죽었다니 할 수 없으려니와 그 아버 되

는 심봉사라도 이 잔치에 오든지 거취를 알든지 해서 찾았으면 전에 우리가 상의한 대로 그렇게 해주련만.

장승상 부인 : 네에, 효녀 심청의 성을 널리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도 지당하신 처분이신 줄 아옵고 신도 주소*로 심봉사를 기다려 마지 않습니다.

(중략)

장승상 부인 : 응 마침 잘 나왔소. 아니 참 내 양딸 심청이지. 심청이 어여 이리 오너라. 중전마마께서 혹시 내가 심불리 할까 하셔서 또 근령을 합신다.

왕후 : 김가가 심가가 되어서 장님을 아버지라 하고 살기가 거북하리라만 어쩔 수 있니. 내가 아주 영영 심청이가 된 셈만 치려무나. 그러면 출천대효 심청이가 되니 오죽 좋은 일이나.

궁녀 김씨 : 명심하겠나이다.

장승상 부인 : 거리낄 건 조금도 없느니라. 눈을 뜬 사람이라면 좀 거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니 그저 아버지라고만 하고 살뜰히 시중만 들어주면 그만이다.

[C] 궁녀 김씨 : 중전마마 영이시니 힘껏 시행을 하겠습니까 마는 혹시 무슨 서슬에 탄로가 나면……

장승상 부인 : 그럴 리야 없지. 그리고 참 나에게도 마님이라고 깎듯이 불러야 한다.

궁녀 김씨 : 네.

내시 을 : (하수로 등장, 읊을 하고) 황주 도화동 심학규 알현이요.

왕후와 장승상 부인 반기면서 마주 보고는 하수편을 바라본다. 심봉사 내시 을에게 인도받아 등장. 궁녀 김씨와 다른 궁녀들도 심봉사에게로 시선이 쏠리고 궁녀 김씨는 좋지 아닌한 안색으로 고개를 숙인다.

장승상 부인 : (심봉사가 등장할 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가 궁녀 김씨를 보고) 그러면 내가 일러준 대로 잊지 말고 있다가 내가 손짓을 하고 아가 심청아 어서 오너라 너의 아버지 오셨다 하거들랑 아버지 부르고 쫓아와서 매달려 응.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났느냐고 묻거들랑 중전마마께서 마침 그때 해변을 순어하시다가 구해주셨다고 응 그런 말 다 잊잖았지?

궁녀 김씨 : 네.

심봉사 : (내시 을의 인도로 전계*의 자리 위에 엎드려 세 번 절한다.) 소명은 황주 도화동 사옴던 심학규로…….

왕후 : 응, 네가 심학규시 분명하냐?

심봉사 : 네에 이 세상에 돌도 없이 팔자가 기구한 심봉사 심학규에 갈 데 없사옵니다.

왕후 : 그렇다면 너를 기다리던 사람이 따로 있으니 만나 보아라. (장승상 부인에게 눈짓을 한다.)

장승상 부인 : (전계로 나가서) 심생원 나를 알겠소?

심봉사 : ㉠ 어? 이 이 도화동 장승상 부인 아니십니까? 아 참 죽잖고 살아 있으니 또 뵈게 됩시다그러?

장승상 부인 : 네, 펍 반갑소. 그런데 심생원이 정말 반가운

일이 있소.

심봉사 : 네? 반가운 일이라니요? 혹시 뺨덕이네가 그 황봉사 놈하고 여기 온 것을 부인께서 붙잡아 놓셨습니까?

장승상 부인 : 아아니요. 그 따위 뺨덕어미하고는 만 명을 주어도 아니 바꿀 일이지요.

심봉사 : 그럼 무엇이 반가운 일입니까? 혹시 나라에서 나를 불쌍하다고 전장이나 좀 내어주신답니까?

장승상 부인 : 그것도 있지요. (방백) ㉡ 대변에 불쑥 말을 하면 너무 좋아서 기절을 할 테니 천천히 해야지. (심봉사더러) 그것도 있지만 더 반가운 소식이지요.

심봉사 : 그러면 혹시 우리 우리 심… (말을 마저 하지 못한다)

장승상 부인 : 네, 심청이 소식입니다.

심봉사 : 심청이 소식이요?

장승상 부인 : 네, 심청이가… 차세 들으시오, 죽지 않고.

심봉사 : 심청이가, 네 죽지 않고 그러면? 그러면? 오오 살아 있대요?

장승상 부인 : 네, 살아 있어요.

심봉사 : 그러면 그렇지. (벌떡 일어서서 춤을 덩실덩실 추며) 어허 좋다. 그러면 그렇지. 내 딸 심청이가 죽다니 될 말인가! ㅎㅎ 좋다. 얼씨구 좋다. 심청이가 우리 딸 심청이가 출천대효 내 딸 심청이가 죽대서야 천도가 무심하지 ㅎㅎ 좋다. 얼씨구 좋다. 글썽 어쩐지 그런 것만 같더라니 거 참 혈육이란 할 수 없는 거야! 어쩐지 어테 가서 살아있는 것만 같더란 말이야! ㅎㅎ 좋다. 얼씨구 좋다. 그런데……그런데 말씀입니다. 장승상 부인 그래 그 애가 지금 있기는 어테 가 있답니까? 그건 모르시나요?

장승상 부인 : 왜요. 알지요. (궁녀 김씨에게 손짓을 하며) 이에 심청아 어여 오너라. 너이 아버지 오셨다.

심봉사 : 영? (또 한 번 달리 놀라) 영?

궁녀 김씨 : ㉢ (전계로 나오면서) 아버지. (매달리지 않고 무춤* 머물러 선다)

심봉사 : 오오 심청아 어테 보자. (눈도 떴다. 껴안으려고 달려든다) 내가 띠어 주려던 눈도 지방이야 떴다.

궁녀 김씨 : 아이구머니! 송축해라! (돌아서서 전 안으로 들어가며) 장님이라더니 눈을 떴어요. (전 뒤로 퇴장)

심봉사 얼떨떨해서 멍하니 섰다가 전후좌우와 위아래로 둘러본다. (특히 관객에게 눈 뜬 것이 보이도록) 장승상 부인과 왕후는 궁녀 김씨가 실패한 것을 당황하다가 심봉사가 눈 뜬 것을 알고 기뻐한다.

장승상 부인 : 어찌면! (심봉사를 들여다보며) 정말 눈을 떴구려! 원 이런 신통한 도리가 또 있을까?

심봉사 : ㉣ 네 하도 반가워서 눈이 그냥 번쩍 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장승상 부인 : 원 어찌면 몽운사 부처님의 영험이 이제야 발현했나 보우. 그것도 다 심청이가 죽은 정성이지요.

심봉사 : 네 심청이가 또 죽었어요?

장승상 부인 : 네 아니 아이구 이걸 어찌나 내가 입이 방정
이야. 그 애가 또 아니라 하고 달아났지! 이걸 어찌면
좋습니까?

왕후 : 할 수 없지요. 일회일비라니 눈 뜬 것이나 다행한 일
이니 바른대로 말해 주시오.

장승상 부인 : 여보, 심생원 그런 게 아니라 심청이는, 정말
심청이는 저 인당수에서……

심봉사 : 네, 인당수에서? 아니 아까 그건?

장승상 부인 : 아까 그건 거짓말 심청이고 그래서 심생원이
눈을 뜨니까 질겁을 해서 달아났다우. 그리고 정말 심
청이는. 여보 심생원 정말 심청이는 인당수에서 아주
영영 죽었……

심봉사 : ㉠(자기 손가락으로 두 눈을 각 찌르면서 엎드려
진다) 아이구 이 높은 눈 구멍! 땀을 잡아 먹은 높은
눈구멍! 아주 눈 알맹이째 빠져 버려라. (마디마디 사
무치게 흐느껴 운다)

- 채만식, 「심봉사」 -

* 흠향 :神明(神明)이 제물을 받음.

* 억색 : 억울하거나 원통하여 마음이 답답함.

* 주소(晝宵) :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전계(殿階) : 궁전으로 오르는 계단의 섬돌.

* 무춤 : 놀라거나 어색한 느낌이 들어 하던 것을 갑자기 멈추는 양.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 ① (가)는 배경 묘사를 통해 사건을 암시하고 있고, (나)는 인
물의 과장된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 배경 묘사를 통해 사건을 암시하는 부분은 없고, (나)에서 드
러나는 과장된 말과 행동은 희곡이 일반적으로 갖는 특징이다.
- ② (가)는 독백적인 서술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나)는 인물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양상
을 보여 주고 있다.
(가)에는 독백적인 서술이 드러나 있지 않고,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
나지도 않는다. (나)에서는 심봉사가 자신의 눈을 찌르는 장면에서 심
봉사의 내면적 갈등이 드러나는 것이지,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인물이 자신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
하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가)에서는 심봉사가 탐전에서 자신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
고, 독자는 이를 통해 사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나)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인물의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이 겪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과거 회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가)에는 심봉사의 과거 회상
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비현실적 상황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을 긴박
하게 전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빈번한 장면 전환이 없고, 사건을 긴박하게 전개하지
도 않는다.

0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보기>

소설 속 인물들은 자신의 고유하고 개별적인 욕망을 지향하고 갈망하는 '욕망 주체'이자 다른 이들의 욕망 실현에 영향을 주는 '욕망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 욕망은 욕망 주체의 끊임없는 노력이나 중재자의 도움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 좌절되기도 한다. 또한 가끔은 중재자의 희생이나 절대적 존재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 예기치 않게 욕망이 실현되기도 한다.

- ① 인당수를 건너고 싶다는 '남경장사 선인'의 욕망은 '심청'의 욕망이 실현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심청의 공양미 삼백 석에 대한 욕망은, 남경장사 선인이 인당수를 건너기 위해 제물을 사고자 하는 욕망을 계기로 하여 실현되었다.
- ② '천신'은 개별적인 욕망 주체의 지향에 응답하여 욕망을 중재하는 초월적인 힘으로 욕망의 실현에 영향을 준다.
심청의 욕망이 실현된 것은, '천신'이 심청에 감응하여 앞일을 인도했기 때문이다.
- ③ '귀덕 어머니'는 '아버'의 욕망을 대신 실현하려는 '심청'을 위해 '남경장사 선인'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중재한다.
귀덕 어머니가 남경장사 선인을 심청에게 데려오는 것은 심청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 ④ 자신의 욕망으로 '아버'의 욕망을 발원한 욕망 주체는 절대적 존재의 힘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된다.
심청은 심봉사가 눈을 뜨기를 발원했고, 천신은 심청에게 보상을 내렸다.
- ⑤ '심봉사'는 자신의 욕망 실현을 염원했던 것에 대해 자책하나 예기치 않게 욕망이 실현된다.
심봉사는 자신이 눈을 뜨기를 염원하여 심청이 팔려간 것에 대해 '뭉쓸 놈의 팔자'라며 자책하지만, 황후가 된 심청을 보자 예기치 못하게 눈을 뜨게 된다.

03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B]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① [B]에서의 궁궐은 환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나)에서의 궁궐은 심봉사가 현실을 직시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B]의 궁궐은 심봉사가 눈을 뜨고, 구름이 깔리며 학들이 노니는 환상적인 공간이다. 한편 (나)의 궁궐은 심봉사가 심청이의 죽음을 직시하는 공간이다.
- ② [B]에서는 장면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기쁨을 보여주고, (나)에서는 인물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절망감을 드러낸다.
[B]에서는 백운, 청학, 공작 등을 통해 심 봉사의 기쁨을 보여주며, (나)에서는 심 봉사가 비극적 상황을 인식하면서 절망감을 드러낸다.
- ③ [B]와 달리 (나)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현실에서 일어난 심청의 죽음을 감추려 한다.
(나)에서는 새로운 인물 궁녀 김씨를 등장시켜, 심청이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속이고 있다.
- ④ [B]와 달리 (나)에서의 왕후와 장 승상 부인이 상의하는 것은 심청의 효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장 승상의 대사 '효녀 심청의 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로부터 알 수 있다.
- ⑤ [B]와 달리 (나)에서 심봉사가 자신의 **현실적인 소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심청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나)에서 심봉사는 자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한편 [B]에서는 "세세 원정 날날이 아린 후에 죽자고"라며 현실적인 소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안타까움의 정서를 부각하기에 적절하다.

04

[A]와 [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① [A]에서 '남경장사 선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혀 신뢰성을 강조하고, [C]에서 '궁녀 김씨'는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있다.

남경장사 선인은 자신이 황성 사람임을 밝히며 신뢰를 확보하고 있고, 궁녀 김씨는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② [A]에서 '심청'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여 걱정하고, [C]에서 '궁녀 김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심봉사가 눈을 뜰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걱정의 정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 궁녀 김씨는 장승상 부인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며, 궁녀로서 중전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을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A]에서 '심청'은 도덕적 가치를 근거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C]에서 '장승상 부인'은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청은 도덕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지도 않다. 장승상 부인은 궁녀 김씨가 자신을 마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A]에서 '남경장사 선인'은 예상되는 문제를 언급하여 상대 방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C]에서 '장승상 부인'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며 위로하고 있다.

남경장사 선인은 심청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장승상 부인은 궁녀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지, 궁녀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다.

⑤ [A]에서 '남경장사 선인'은 처할 수 있는 위기를 언급하며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C]에서 '장승상 부인'은 상대해야 하는 사람의 특성을 들어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있다.

남경장사 선인은 인당수에서 몰사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제물을 사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장승상 부인은 심봉사가 맹인임을 언급하며 궁녀를 안심시키고 있다.

05

㉠~㉣ 중 (나)를 공연하기 위한 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① ㉠ : 장승상 부인이 하는 말을 듣고 반가움이 드러나는 목소리로 반응하며 표정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어.

심봉사가 장승상 부인을 오랜만에 보고 알아보는 장면이므로, 반가움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② ㉡ : 심봉사가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관객을 향해 대사를 한 후 심봉사 쪽으로 몸을 돌리고 대사를 하는 것이 좋겠어.

방백은 무대 위 인물이 듣지 못하는 대사이므로, 관객들이 ㉡이 방백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관객을 향해 대사를 해야 한다.

③ ㉢ : 어색한 태도로 심봉사 앞으로 나오면서 마지못한 목소리로 대사를 하는 것이 좋겠어.

매달리지 않고 무춤 머물러 선다는 지시문에 따른 것이다.

④ ㉣ : 눈을 뜬 것에 대한 신기함과 딸이라고 여겼던 인물이 도망간 상황에 대한 당황함이 드러나도록 표정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어.

예기치 못하게 눈을 뜬 것에 대한 신기함과, 심청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예기치 못하게 도망간 것에 대한 당황함을 드러낼 수 있다.

⑤ ㉤ : 심봉사의 애절한 심정을 부각하기 위해 절제된 감정 표현이 드러나도록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어.

눈을 찌르면서 사무치게 흐느껴 운다는 지시문을 고려할 때, 절제된 감정 연기는 부적절하다.